

장흥군, 친일잔재 청산 '역사 바로세우기' 나섰다

TF 구성 도로·문화유산·지명 등 조사범위·방법 등 논의 전국 유일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 역사·의향 명소 개발

장흥군이 도로·문화유산·지명 등의 친일 잔재를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일 잔재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친일 잔재 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TF는 기획홍보실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2명과 행정 단원 6명이 참여했다.

TF는 이달 동안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명칭, 친일 관련 기록물, 건축물, 도로명·지명 변경 사항, 문화유산, 문화재 등의 친일 흔적을 1차 수집한다.

또 지역민 등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사안별로 분류하고, 수집된 자료의 양에 따라 자체 추진 또는 용역 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7~8월에는 친일 잔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9월부터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올해를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정했다.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알려져 있다.

1955년 장흥에 살던 유림 안홍천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재를 털어 해동사를 건립했다. 건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동명월(海東明月)'이라는 친필 현판 편액을 받았고, 위패 봉안식에는 안 의사의 딸 안현생과 5촌 조카 안춘생이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참석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3년간 해동사 인근에 70억 원을 들여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해동사를 역사, 의향, 문화의 명소로 개발하고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활용



전국 유일의 안중근의사 사당 '해동사'가 있는 장흥군이 친일 잔재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 (장흥군 제공)

다는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은 역사적으로 항일 투쟁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의병을 배출한 의향의 고장"이라며 "친일잔재를 청산해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대표 스타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 12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12일까지 장성군을 대표할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성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과 판로개척의 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장성에 위치하고, 창립 3년 이상인 기업이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내 등록예정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과 홈페이지, 정보화 및 각종 인증지원,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지적재산권 지원, 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의 마케팅 지원이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다양한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성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을 많이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령친화도시 나주, 시민 눈높이 어르신정책 수립

모니터링단 30명 위촉 카페 개설 등 현장형 조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인 나주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고 현실성 있는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기했던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지난 28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니터링 위원은 총 20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성별·거주지 등을 안배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 간이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8대 영역(일자리지원·지역사회활동참여·주거편의환경 등) 55개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온라인 카페 개설, 각종 일상 생활속 어르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형 조사도 병행한다.

나주시는 단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니터링단 월별 회의, 관련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신규 시책이나 개선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정기 간담회를 통해 단원들이 조사·수집된 결과를 발표·공유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필요 사업 등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여성에 이은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모니터링단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남녀노소, 전 세대가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28일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정남진 장흥 물축제 결국 취소

오는 8월1일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장흥군과 정남진장흥물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심의회를 열어 물축제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물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화설문조사(ARS)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 결과, 물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지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했다.

올해 물축제 기간은 8월 1일-9일까지로, 지난해 보다 이틀이 늘어난 9일 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행안부 골목경제 지원사업

함평군 선정...4억 지원 받아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휴·폐업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 접수했으며, 함평군 '함평천지, 나비가 날다' 등 전국 10개 상권을 선정했다. 1곳당 4억원씩 지원한다.

함평군은 읍내 공용터미널에서 농협 함평군지부에 이르는 약 350m 구간의 중앙길 골목상권이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상구간 내 상가 외부 경관을 지역 대표 이미지인 나비를 테마로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활용해 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진단서비스 제공

진단 키트 고추·수박·오이 등 사용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바이러스병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감염 의심 증상을 진단키트에 2-3방울 떨어뜨려 주면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진단도구이다.

휴대용 진단키트는 고추, 수박, 오이, 토마토 등에 사용 가능하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 10여 종의 바이러스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은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한 번 발병하면 병에 걸린 작물을 제거해야 전파를 막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고온 및 건조한 날씨로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증가, 주의가 요구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